

제222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시정 질문(보충) 서면 질문서

(유화 의원)

안 산 시 의 회

안산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서

1.수인선의 개통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수인선의 개통과 더불어, 현재 일동과 이동의 연결도로이면서 이동의 신도시와 이동 구도심의 유일한 연결 도로인 농수산물과 신도시방향 한대앞역으로의 도로가 폐쇄가 되면 이동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게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답변에서는 현재 도로지점이 도로 공간 협소 및 기술 연건상 검토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진행되는 과정에 이동 지역단체장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KT앞의 S자 왕복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였으나, 2011년 11월 21일에 이동단체장 설명회, 11월 25일에 이동 통장협의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난후, 단, 한차례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결과를 통보해 준바도 없었으며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한대앞역의 상권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도 의견을 청취한 후 답변에 대하여 기술적인 자세한 설명이 없이 2011년 11월과 12월중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획했던것도 실시하지 않은바 있습니다.(건설과 자료참고와 주민들 답변) 답변에 기술여건상 불가하다는 것은 현 도로가 좁은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도로는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하여 건설된다고 여겨지는바 답변내용의 7자 도로에 추가하여 지하도로로 현재와 같이 직진과 좌회전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안산은 25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서관은 29개소입니다. 답변에 따르면 “추후 6개소를 더 증설하겠다고 하였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제5조와 제 11조규정을 들어 교육감이 설치하고 광역지자체(특별.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안산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에 적극적인 도서관 진흥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경비를 통하여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것인지와 예산확대를 어느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9.23.(수)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 추가질의 서면답변 〕

＜ 서면 질문 : 1의원 2건 ＞

【 서 면 답 변 】

○ 유 화 의 원 : 2건



안 산 시

□ 유 화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수인선 개통과 더불어 동서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수인선 개통에 따른 이동 신도시와 구도시 연결 ㄱ자 도로에 추가하여 지하도로로 현재와 같이 직진과 좌회전이 될 수 있는 방안은?

○ 우리시에서는 수인선 반지하화에 대한 이동 신도시와 구도시의 연결도로인 임시도로가 폐쇄됨에 따른 지역 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노선검토과정에서 이동 지역단체장 주민설명회(2011. 11. 21.) 및 이동 통장 설명회(2011. 11. 25.), 한대앞역 지역상가연합회 설명회(2012. 1.10.)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동 통장 설명회 시에는 현재 S자 노선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며 추가로 ㄱ자 노선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최종 안산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현재의 노선(S자 : 왕복4차로, ㄱ자 : 편도 1차로)을 선택한 사항입니다.

- 의원님께서 현재 임시도로(왕복4차선)와 같이 지하차도로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가 왕복4차로의 T자형 선형으로 되어야 하나, T자형의 4차로의 경우 지하철 4호선 철도교각 기초에 구조물이 간섭되어 시공이 불가하고 이동 구도시 쪽 충장로 구간의 경우 지하차도에 인접한 상가들의 경우 지하차도로 직접 진입이 불가하며 사고위험으로 다음 교차로까지 가서 유턴하여 지하차도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이 경우 이동 구도시 지하차도 인접 상가들의 반대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 또한, ㄱ자(일방향, 이동 구도시→신도시)구간 반대방향으로 진입만하는 노선 검토 시 신도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충장로의 도로변 상가에 인접하게 되므로 상가에 차량진입이 어려우며, 충장로 기존 6차로 확보가 곤란하고 충장로를 종단하는 배수암거(2.5×3.0, 2열)를 이설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신도시에서 KT삼거리 방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지하차도에 인접 상가들이 없어 주민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하차도를 통과한 차량은 KT삼거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신설 4차로(S자 구간) 지하차도와 도로 기능이 중첩되어 설치 효과 미비 및 예산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또 다른 반대 민원 발생과 철도 교각 기초 간섭 및 지장물(우수박스) 이설 등 현장여건 상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현재 시공 중인 노선은 수인선 개통과 맞물려 우리시에서 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공 중으로 S자 구간은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ㄱ자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의 임시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왕복 4차(S자 구간)로 구간 개통 후 2017년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두 번 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향후 교육경비를 통하여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에 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인지와 예산확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 107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 사업 안내를 위한 공문 내용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을 포함하여 통보(2015.10.2.)하였고,

○ 현재, 2016년도 전체 교육경비 예산을 2015년도 (135억원)보다 23억원을 증액 요청한 상태로, 가능한 ‘학교도서관 진흥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증액하여, 관련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학교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